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 -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Premarital Preparation Evaluation Scal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혜선
좋은만남(주)선우 리서치팀
선임연구원 신수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Hye Seon
Best Marriage Information Sunoo Co, Ltd.
Researcher : Shin, Soo A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문헌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evaluation of premarital preparation. The subjects were 412 married couples(196 males and 216 females) who had been married for 1-3 years. They were selected from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Pusan, and DaeGu.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82 item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factor analysis, Pearson's r, and Cronbach's α .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The 54 items of 82 items scale were selected through item discriminant method.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items(Cromer's V) ranged from .33 to .68.

2. The 7 factors that were extracted from the factor analysis explained 42% of premarital preparation. The subscales were labelled as rearing child · financial management · role division, maturity, understanding each other · love · sex, views about marriage, understanding his/her family and friends, capacity of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nd independence from parents.

The criterion validity of this scale was assess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premarital preparation scale and marital stability. All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ranged from $r=.10$ to $.44$, $p<.01$, $p<.001$).

3.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was acceptable(Cronbach's $\alpha=.91$).

주제어(Key Words): 결혼(marriage), 결혼준비도(evaluation of premarital preparation), 척도(scale)

I.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하여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 의사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2000).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일 경우에는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즉, 남녀가 서로에게 일치감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Shoen, 1975, 김혜선, 박해인, 옥선화, 1996에서 재인용),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결혼 초기의 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통계청, 2000a)하고 있는 사실 또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결혼하여, 결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전 단계에서의 준비는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준비의 측면에서, 결혼 전의 상담이나 혼련 등은 결혼적응에 도움이 되며(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 Stanley & Markman, 1997),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된다(Silliman, Stanley, Coffin, Markham, & Jordan, 2001; <http://www.smartmarriages.com>)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 전 단계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미혼남녀가 각자 자신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김혜선, 박희성, 2001). 즉, 보다 효율적으로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결혼 전에 결혼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PREPARE, RELATE, FOCCUS, CMRE) 등이 개발되어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가 없으며, 이러한 외국의 척도들은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의 척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혼준비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자신의 결혼준비 정도를 평가해 볼 수는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척도를 제공할 것이며, 결혼준비 차원에서의 상담이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결혼준비도 척도'는 신뢰할만하고 타당한가?

1-1. 결혼준비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1-2. 결혼준비도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1-3. 결혼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관련문헌고찰

1. 결혼준비의 개념 및 범주¹⁾

결혼준비란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정서적·인격적·신체적·경제적·법적·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 김혜선과 박희성(2001)은 결혼준비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결혼준비의 개념과 결혼준비평가 영역에 관한 조사를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이 부분에서는 본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는 Markey, Micheletto와 Becker(1985, <http://www.foccusinc.com>), Fowers와 Olson(1986, 1989), Manson(1965) 등 결혼준비 척도를 개발한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선행 연구(김혜선, 박희성, 2001)에 의하면 결혼준비의 평가영역은 크게 개인적 준비 측면, 관계적 준비 측면, 그리고 결혼생활 준비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준비 측면은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 건강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관계적 준비 측면은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자율성 등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혼생활 준비 측면에는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파악 및 이해 등의 세부영역이 포함된다. 개인적 준비 측

면 중 성숙은 성숙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눈 서봉연과 황상민(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척도에서는 성숙이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준비도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성숙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았다. 또한 관계적 준비 측면 중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은 별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것보다는 대다수 외국의 결혼준비도 척도(POCCUS, RELATE, PREPARE)에서처럼 커플의 각 파트너가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밝히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의 문항 작성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즉,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얼마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서로를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는지는 두 사

<표 1> 결혼준비 평가영역

구분	세부영역	결혼이 준비된 구체적인 상태
개인적 준비측면	성숙	자기 조절능력이 있으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을 수 있으며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된 상태
	부모로부터 독립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결혼의 동기가 부모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관계적 준비측면	애정도	상대에 대한 애정표현정도 및 사랑의 각 요소(열정, 친밀감, 헌신), 혹은 수용도에 있어 이해와 확신이 있는 상태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기대와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한 상태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
	자율성	파트너로부터 자율성 정도
결혼생활 준비측면	성	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과 기대, 태도를 가진 상태
	결혼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
	결혼생활정보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서로 교환하는 상태
	역할분담	결혼 후 역할분담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
	자녀출산과 양육	자녀출산과 양육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
	금전관리	가정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리방법이 서 있는 상태
	양가가족에 파악 및 이해	상대편 출생가족(방위가족)에 대한 적응의지를 갖춘 상태에서 양가 가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서로 원하는 가족형태가 합의된 상태

람의 사고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유사성과 보완성은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Winch(1958)의 이론(정현숙, 최연실, 유계숙, 1998에서 재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을 제외한 14개 영역을 중심으로 결혼준비도 척도의 개별 문항을 구성하였다. 결혼준비 평가영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결혼준비도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

1980년에 인구 1000명당 이혼수가 0.6명에서 2000년에는 2.5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혼율이 급속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a).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결혼의 성공 요인을 밝히는 연구(Klein, 2000; Stahmann & Hiebert, 1997; Weigel & Ballard-Reisch, 1999), 이혼의 예측요인이나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예측요인을 밝히는 연구(Knoester & Booth, 2000; Kurdek, 1993; Maneker & Rankin, 1993; Larson & Holman, 1994; Stanley, Markman, Prado, & Olmos-Gallo, 2001) 등 안정된 결혼의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결혼 전의 요인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안정된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arson과 Holman(1994)은 결혼안정성을 결혼유지 혹은 이혼의 상태로 정의하면서 결혼전의 요인들이 결혼안정성을 예견한다고 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의 요인을 첫째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둘째 자신과 배우자의 유사성과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3-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요인에는 정신건강, 자존감 등 성숙과 신체적 건강이 포함되고, 두 번째 요인에는 성, 종교 등의 물리적 유사성, 가치나 태도 등의 정서적 유사성, 그리고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 요인에는 가족, 사회·문화적 배경,

친구, 외적 압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의 결혼준비 척도의 요인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Klein(2000)은 결혼 전의 준비가 결혼의 성공이나 실패를 완전히 예견할 수는 없지만, 결혼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한 성직자, 사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살펴본 Stanley와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도 결혼 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Fowers와 Montel 그리고 Olson(1996)은 자신들이 개발한 결혼준비척도인 PREPARE가 결혼안정성을 예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브리검영(Brigham Young)대학(1997, <http://relate.byu.edu>)에서 개발한 결혼준비척도인 RELATE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결혼준비도는 결혼안정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가 결혼안정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 정도와 결혼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도시지역(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면서 결혼 후 만 1년-3년 사이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혼준비 정도는 회고법을 사용하여 과거형으로 물어보았고, 결혼안정성은 현재형으로 물어보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9년 현재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통계청, 2000a), 기간이 너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회고법의 한계도 함께 고려하여 결혼 후 만 1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2²⁾)

변 수	집 단	빈도(%)
성 별	남	196(47.6)
	여	216(52.4)
연 령	25세 이하	30(7.4)
	26-30세	248(61.3)
	31-35세	116(28.7)
	36세 이상	10(12.5)
학 령	고졸 이하	183(45.9)
	전문대졸	42(10.5)
	대졸 이상	174(43.6)
소 득	100만원 이하	33(8.2)
	101-200만원	181(45.0)
	201-300만원	113(28.1)
	301만원 이상	75(18.7)
직 업	생산·서비스직	96(24.9)
	사무·관리직	135(35.5)
	전문 기술·관리직	34(9.1)
	전업주부 기 타	104(27.3) 13(3.4)
지 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51(61.1)
	부 산	54(13.1)
	대 구	45(10.9)
	광 주	30(7.3)
	대 전	31(7.5)
출생연고지역	대도시	245(59.5)
	중소도시	97(23.5)
	읍·면 이하	66(16.1)
	기 타	3(0.7)
종교	기독교	90(22.4)
	천주교	51(12.7)
	불 교	106(26.4)
	기 타	10(2.5)
	종교없음	144(35.9)
결혼지속년수	12-24개월	239(59.3)
	25-36개월	171(41.7)
결혼전 교재기간	12개월 이하	106(26.0)
	13-24개월	101(24.8)
	25-36개월	78(19.1)
	37개월 이상	123(30.1)

2) 변수마다 총 응답자수에는 부분적인 무응답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3년 사이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회고법은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종단적 연구 또한 내적타당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므로(홍두승, 2000), 오히려 회고법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고법의 유용성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사건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Field, 1981)와 결혼생활에서의 문제와 이혼을 종단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회고법과 비교한 연구(Amato & Rogers, 1997)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조사지역으로 한정 한 이유는 2000년 현재 이 지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9%를 차지하므로(통계청, 2000b), 우리나라를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결혼준비도 척도 구성

조사도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 맞게 수정된 선행연구(김혜선, 박희성, 2001)의 결혼준비 영역에 맞추어 국내외 연구 척도들을 수집하였다. 결혼준비척도로는 Olson(1997, <http://www.lifeinnovation.com>)의 PREPARE(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 브리검영(Brigham Young)대학(1997, <http://relate.byu.edu>)의 RELATE(RELATIONSHIP Evaluation), Markey와 그의 동료들(1985, <http://www.foccusinc.com>)의 FOCCUS(Facilitating Open Coupl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 Study), Manson(1965)의 CMRE(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 등의 척도를, 이 외에 서봉연과 황상민(1993)의 성숙 척도, Hoffman(1984)의 독립성 척도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결혼준비에 관한 내용의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미혼 4명(남자 2명, 여자 2명), 기혼 10명(남자 5명, 여자 5명), 이혼 2명(여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척도 수집과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96개 문항의 1차 예비 질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가정학 전공 교수 2인과 전문적인 상담가 2인, 그리고 가정

학 박사 3인에 의해 문항적합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부내용의 수정이나 가감을 통해 다시 작성된 92개 문항의 2차 예비 질문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후 만 1년에서 3년 사이의 남녀 4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치 않은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등 10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조사에 사용될 82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응답방식은 결혼 전에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의 5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2) 결혼안정성 척도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결혼준비도 척도가 안정적인 결혼을 예견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안정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와 Johnson 그리고 Edwards(1983)의 결혼불안정성 척도(MII: Marital Instability Index)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혼불안정성 척도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인지적 평가로부터 실제 이혼 제안 등 행동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누적적 성격의 척도로 총 19문항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 남녀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하는 문항부터 별거 경험을 묻는 문항까지는 예비조사 결과 대상자가 모두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10문항을 제외하고 총 9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부호화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한 적이 없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상당히 많이 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³⁾. 응답가능한 점수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안정성 척도의 타당도는 가족학 전공자 3인을 통해 검증받았고 신

뢰도 Cronbach의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이 조사의 조사도구 구성을 위해 2001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사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고, 1차 작성한 문항에 대해 문항적합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수정된 92개 문항으로 2001년 5월 8일부터 2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정리된 82개의 결혼준비도 척도 문항에 대한 본조사는 2001년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서 결혼 후 만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⁵⁾를 토대로 비례적 층화추출을 통하여 성, 지역,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5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각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였다. 즉, 서울 및 경기 62%, 부산 12%, 대구 10%, 광주 7%, 대전 7%로 할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을 성별, 교육수준별로 분류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인구비율에 따라 표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각 교육수준별 인구비(고졸 이하 49%, 대졸 이상 51%)에 따라서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내용은 동일하나 인칭대명사가 다른 남성용, 여성용 질문지를 총 500부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412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결혼불안정성 척도(MII)는 원래 예/아니오의 양자택일 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이 형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전충애, 박성연(1993)과 최연실(1987)의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증명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척도를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사전조사, 문항적합도와 안면타당도 검증, 예비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2. 1) 결혼준비도 척도구성을 참고

5) 결혼 후 만 1-3년 사이인 사람들의 나이는 대체로 25-35세 사이이므로 전체 인구가 아니라 25-35세 사이의 인구비에 따라 조사대상을 표집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문항과 척도 총점과의 상관관계, χ^2 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양호도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82개 문항의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문항과

〈표 3〉 문항 양호도 분석 결과⁶⁾

문항	문항내용	상관관계	문항 제외시 α	χ^2	Cramer's V
1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51	.89	99.66**	.68
2	나는 그녀가 어떠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44	.89	62.89**	.54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30	.89	40.49**	.44
4	나는 그녀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32	.89	39.14**	.43
5	나는 재미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2	.89	86.67**	.64
6	나는 어려움에 빠지면 우선 부모님을 찾았다.	.30	.89	36.96**	.42
8	우리는 자녀 양육시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 의논하였다.	.37	.89	45.59**	.46
10	우리는 누가 돈 관리를 할 것인지 합의를 보았다.	.38	.89	77.94**	.61
12	나는 그녀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풀어주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45	.89	61.98**	.54
13	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기꺼이 의논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45	.89	83.13**	.63
14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것 같아 두려웠다.	.31	.89	30.52**	.38
15	나는 그녀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32	.89	43.67**	.45
16	나는 결혼생활에서 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30	.89	32.29**	.39
17	나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30	.89	22.76**	.33
19	우리는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36	.89	61.67**	.54
20	나는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52	.89	79.61**	.61
23	나는 그녀의 애정표현에 만족했다.	.42	.89	54.00**	.50
24	우리는 생활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44	.89	62.47**	.54
25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서서 도와주는 친구가 많았다.	.31	.89	26.88**	.36
26	나는 그녀의 감정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55	.89	95.39**	.67
27	우리는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였다.	.47	.89	94.53**	.67
30	그녀는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	.42	.89	63.61**	.55
32	나는 그녀를 존중했다.	.51	.89	85.33**	.63
34	우리는 아내가 집안일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36	.89	65.70**	.56
36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었다.	.30	.89	37.78**	.42
37	나는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을 잘 알고 있었다.	.44	.89	54.70**	.51
38	우리는 자녀 양육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해 의논하였다.	.42	.89	51.51**	.49

**p<.001

6) 문항번호는 본조사에서 사용된 번호이며, 문항양호도 검사에 사용된 82개 문항 중 최종 선택된 54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 분석결과만 기재하였다.

모든 문항에 들어가 있는 '결혼 전에' 라는 수식어는 생략하였으며, 문항은 남성용으로 기재하였다.

〈표 3〉 계속

문항	문항내용	상관관계	문항 제외시 α	χ^2	Cramer's V
40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36	.89	38.32**	.42
42	우리는 자녀가 받아야할 조기교육 등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32	.89	38.52**	.43
44	나는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43	.89	72.48**	.58
45	나는 그녀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	.48	.89	75.73**	.60
46	우리는 남편이 집안일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42	.89	70.15**	.57
48	나는 세상이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33	.89	35.68**	.41
51	나는 성공하려면 노력하는 것보다는 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40	.89	39.83**	.43
52	우리는 분가해서 살 것인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인지 합의하였다.	.34	.89	66.83**	.56
54	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손해만 본다고 생각했다.	.37	.89	34.28**	.40
55	나는 그녀와 사귀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다.	.52	.89	85.59**	.63
56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기대와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40	.89	47.58**	.47
60	나는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었다.	.49	.89	80.86**	.62
61	나는 그녀를 성적인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45	.89	61.56**	.54
63	그녀는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36	.89	55.51**	.51
64	나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3	.89	33.66**	.40
66	나는 결혼 후에 일어날 경제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었다.	.36	.89	41.40**	.44
69	나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그녀를 좋아할지라도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38	.89	65.36**	.55
70	나는 나의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녀를 고려하였다.	.45	.89	91.77**	.66
71	나는 일단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45	.89	77.99**	.61
72	우리는 만약 분가한다면 시가나 처가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37	.89	47.81**	.47
74	나는 그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42	.89	60.48**	.53
75	우리는 각자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4	.89	51.48**	.49
76	나는 그녀와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43	.89	70.16**	.57
78	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45	.89	64.49**	.55
79	나는 걸음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실제의 내가 항상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31	.89	34.53**	.40
81	나는 결혼생활에서 그녀와는 가까이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38	.89	53.11**	.50
82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논의를 통해 의견일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54	.89	83.38**	.63

**p<.001

척도 총점간의 상관계수, 문항이 제거된 후의 α 값, χ^2 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82개 문항 중 제거된 후의 α 값이 증가하는 문항 및 개별 문항과 척도 총점과의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 21개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5% 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61개 문항은 모두 P<.001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계수는 .33에서 .68로 산출되었다. 만족스러운 변별도 기준이 .25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의 문항

구성은 양호하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 타당도

문항양호도 검증을 통해 추출된 61개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분류한 결혼준비도 영역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변수들을 필요한 최소한의 요인들로 추출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회전방법으로는 하나의 요인에 높이 적재되어 있는 변인의 수를 줄여서 요인의 해석에 중점을 둔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수와 스크리 검정(scree test), 누적 분산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하는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해당 요인과의 요인 부하값이 .30에 못미치거나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과 일치하지 않는 문항 7개를 제외한 54개 문항을 결혼준비도를 측정하는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요인구조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6.9%를 설명하는데, 자녀 출산과 양육, 금전관리, 역할분담 등과 관련된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결혼 전에, 우리는 자녀 양육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해 의논하였다', '결혼 전에, 우리는 누가 돈관리를 할 것인지 합의를 보았다', '결혼 전에, 우리는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를 보았다' 등이 있다. 따라서 10개 문항이 포함된 첫 번째 요인은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9%를 설명하며 10개 문항이 포함된다. 이들 문항은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숙'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결혼 전에, 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손해만 본다고 생각했다' 등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결혼 전에, 나는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를 잘 알았다', '결혼 전에,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결혼 전에, 나는 그를 성적인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등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애정도, 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3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3.1%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항들은 '결혼 전에, 나는 일단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묻고 있으므로 '결혼관'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8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8%를 설명하여 준다. 이들 문항은 양

가족과 친구에 대한 파악 및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라고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결혼 전에, 나는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자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혼 전에, 나는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을 잘 알고 있었다' 등이 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는데,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에 관련된 문항에 높은 부하량이 나타났다. 따라서 8문항으로 이루어진 여섯 번째 요인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결혼 전에 그녀는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었다', '결혼 전에,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논의를 통하여 의견일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인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정서적 독립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명명한 일곱 번째 요인은 '결혼 전에, 나는 어려움에 빠지면 우선 부모님을 찾았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5>의 결혼준비도 요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그리고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가 .46, .61, .52로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개인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에 있어서도 보다 유용한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및 친구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이나 갈등상황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기준관련 타당도란 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다른 측정치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때의 타당도는 각 측정치간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홍두승, 2000).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안정성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결혼안정

〈표 4〉 결혼준비도 척도의 요인 행렬표

요인명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h^2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46	.81							.66
	19	.73							.59
	38	.71							.63
	34	.70							.56
	24	.70							.57
	75	.69							.57
	42	.61							.52
	10	.59							.47
	27	.57							.46
	8	.55							.42
성 숙	51		.59						.45
	44		.55						.44
	48		.53						.38
	64		.51						.50
	54		.47						.32
	40		.46						.41
	78		.45						.40
	79		.44						.40
	36		.43						.34
14		.43						.38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61			.67					.45
	45			.56					.43
	1			.53					.53
	60			.52					.51
	70			.52					.42
	74			.50					.41
	32			.48					.44
	56			.48					.45
	23			.46					.36
	26			.45					.47
	55			.44					.51
	81			.42					.39
16			.30					.32	
결혼관	5				.65				.46
	71				.57				.47
	69				.49				.39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20					.71			.57
	2					.69			.53
	37					.36			.35
	15					.36			.34
	25					.33			.30
	3					.31			.35
	72					.30			.48
52					.30			.39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82						.61		.52
	30						.58		.46
	76						.52		.43
	63						.43		.40
	13						.37		.44
	4						.35		.27
12						.31		.44	
부모로부터의 독립	17							.67	.42
	6							.47	.35
	66							.42	.37
고유값 전체변량 누적변량		10.32	6.04	2.43	1.90	1.71	1.65	1.58	
		16.9	9.9	4.0	3.1	2.8	2.7	2.6	
		16.9	26.8	30.8	33.9	36.7	39.4	42.0	

〈표 5〉 결혼준비도 요인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1.00						
성숙	.01	1.00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42**	.37**	1.00				
결혼관	.14**	.42**	.49**	1.00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46**	.39**	.58**	.42**	1.00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29**	.46**	.61**	.45**	.52**	1.00	
부모로부터의 독립	-.03	.39**	.20**	.27**	.22**	.24**	1.00

**p<.001

〈표 6〉 결혼준비도 요인과 결혼안정성과의 상관관계

결혼준비도 요인 준거변인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	성숙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	결혼관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안정성	.10*	.41**	.35**	.28**	.27**	.44**	.24**

*p<.01 **p<.001

성과 모든 측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준비도 척도의 모든 요인은 결혼안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 금전관리 등 역할 분담에 있어서 합의가 되어있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의 산출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DeVellis, 1991). 본 연구에서도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는데, 그 결과 〈표 7〉에서

와 같이 결혼준비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91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로는 .63에서 .8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각 요인의 문항수와 만족스런 신뢰도 기준이 .60 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7〉 결혼준비도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결혼준비도 하위요인(문항수)	Cronbach's α
자녀양육, 금전관리, 및 역할분담(10)	.88
성숙(10)	.75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애정, 및 성(13)	.82
결혼관(3)	.63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8)	.74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7)	.70
부모로부터의 독립(3)	.64
전체(54)	.91

V. 요약 및 논의

결혼 전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각자 자신의 결혼 준비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그 자체로도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결혼 후 만 1-3년 사이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 문항 구성은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관계, 문항 제의 시 α 값, χ^2 검증과 Cramer's V계수 확인을 통하여 그 양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는 구성 및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양호도에서 선별된 61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4개 문항이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해 주는 7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모든 요인은 결혼안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1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각 하위 요인별로도 .63에서 .88의 범위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결혼준비도 정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여러 과정을 통한 문항 손실로 54개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문항 수는 외국의 결혼준비도 척도가 10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적은 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척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첨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도 정도와 결혼안정성을 함께 측정하기 위하여 기혼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척도가 결혼 전에 결혼준비 정도를 평가해주는 척도이므로 연구대상을 미혼 남녀로 하여 측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미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도 척도를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결혼준비 차원에서의 상담이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선, 박혜인, 옥선화(1996).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김혜선, 박희성(2001). 델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4.
- 서봉연, 황상민(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 옥선화, 정민자, 고선주(2000).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전춘애,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1998). 결혼학개론. 서울: 상명대학교출판부.
- 최연실(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0a). 인구동태통계결과.
- 통계청(2000b). 인구주택총조사.
- 홍두승(2000).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Amato, P. R. &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12-624.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3.
-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1995). *Marriage preparation in the catholic church: Getting it right*. Omaha, NE: Creighton University.
- DeVellis, R. F. (1991). *Social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SAGE.
- Field, D. (1981). Retrospective reports by healthy intelligent people of personal events of their adult l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 77-97.
- Fowers, B. J., Montel, K. H., & Olson, D. H.(1996). Predictive validity of types of premarital coupl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103-119.
- Fowers, B. J. & Olson, D. H.(1989). ENRICH Marital inventory: A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assess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65-79.
- Fowers, B. J. & Olson, D. H.(1986). Predicting marital success with PREPARE: A predictive validity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 Hoffman, J. H.(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70-178.
- Klein, D. M.(2000).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Journal of Marital and the Family*, 62, 849-852.
- Knoester, C. & Booth, A.(2000). Barriers to divorce: When are they effective? When are they not?. *Journal of Family Issues*, 21, 78-99.
- Kurdek, L. A.(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 Larson, J., & Holman, T. B.(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Maneker, J. S. & Rankin, R. P.(1993). Religious homogamy and marital duration among those who file for divorce in California, 1966-1971.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9, 233-247.
- Manson, M. P.(1965). 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 manual. WPS.
- Stahmann, R. F. & Hiebert, W. J.(1997). *Premarital counselling: Professionals handbook*(2nd ed.).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tanley, S. M. & Markman, H. J.(1997). *Marriage in the 90s: A nationwide random Phone Survey*. Denver, Colorado: PREP, Inc.
- Stanley, S. M., Markman, H. J., Prado, L. M., & Olmos-Gallo, P. A.(2001). Community-based premarital prevention: Clergy and lay leaders on the front lines. *Family Relations*, 50, 67-76.
- Silliman, B., Stanley, S., Coffin, W., Markham, H., & Jordan, P.(2001).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ouples. In H. Liddle, D. Santisteban, R. Levant, & J. Bray(Eds.) *Family Psychology : Science-Based Interventions*. Washington, D. C.: APA Publications.
- Weigel, D. J. & Ballard-Reisch, D. S.(1999). How couples maintain marriages: A closer look at self and spouse influences upon the use of maintenance behaviours in marriages. *Family Relations*, 48, 263-269.
- <http://relate.byu.edu>
- <http://www.foccusinc.com>
- <http://www.lifeinnovation.com>
- <http://www.smartmarriages.com>